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조선통신사 의례 개정에 관하여*

정 응 수**

目 次

1. 시작하는 말
 2. 사절 집대 의례의 개정
 3. 국휘(國諱)를 둘러싼 논쟁
 4. 복호(復號)를 둘러싼 논쟁
 5. 끝내는 말
-

1. 시작하는 말

임진왜란 이후, 한일간의 외교는 주로 통신사라 불리는 사절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에서 새로운 쇼군(將軍)이 취임하면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의 요청을 받아 조선 정부가 축하사절을 파견하는데, 이 사절단을 ‘신의(信)를 통(通)하게 하는 사절(使)’이란 의미¹⁾에서 통신사(通信使)라 불렀다. 1607년 국교회복에 대한 회답과 임진왜란 포로 쇠환을 위해 파견된 정미(丁未)사절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파견된 통신사²⁾는 1회에 보통 50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약 10개월에 걸쳐 일본을 여행하며 국서 전달이라는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가는 곳마다 물려드는 일본인 학자들과 필담을 하고 시문을 주고받는 문화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따라서 사절단이 작성한 공식적인 보고서나 개인적인 일본여행기는 외교적 사료로서의 가치만이 아니라, 한일 문화교류의 실상을 알려주는 자료로서의 의미도 매우 크다.

한편 일본측에서는 쇼군의 정치적 입지 강화라는 현실적 필요성도 있어서, 통신사를

* 이 논문은 2004년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부교수, 일본학(비교문학·비교문화).

1) 李進熙, 『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講談社, 1987년, 1쪽

2) 정확히 말하면 이 중에서 장군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은 7번이다. 나머지 5번은 임진왜란 포로들의 송환문제를 협의하거나 태평세월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된 사절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12번의 사절을 모두 통신사라 부른다.

상황(上皇)이나 천황의 사절보다 더 정중하게 대우했다. 즉 통신사의 방일이 결정되면, 바쿠후는 사절단이 지나는 길을 관리하는 각 다이묘(大名)에게 향응의 준비와 도로 및 숙소를 수리·보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관리를 파견하여 이를 점검한다. 명을 받은 각 다이묘들은 도로를 보수하고 길 양쪽에 수통을 놓아 길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뿌리며, 비탈길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작은 대나무를 깔고 곳곳에 화장실을 짓는다. 또한 백성들에게도 빨래를 널지 못하게 하며 가옥을 수리하고 새로 칠을 하도록 하여, 사절단에게 깨끗한 인상을 주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 뿐만 아니라 강이 있으면 선교(船橋)를 가설하는데, 기소 강(木曾川) 같은 경우에는 배가 260척이나 동원되고, 오이 강(大井川) 같이 물살이 너무 세어 선교를 부설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월천(越川)뿐 천 수백 명을 동원하여 강물을 막아서게 한 다음 일행을 건너게 했다고 한다³⁾.

이와 함께 바쿠후에서는 오사카(大坂), 오카자키(岡崎) 등지까지 문안사(問安使)를 보내 사절단을 맞이하게 하고, 사절단이 에도(江戸)에 도착하면 로주(老中)를 보내 사절단의 노고를 위로하게 하는 등 매우 극진하게 대접했다. 통신사를 한 번 맞이하는데 바쿠후가 사용하는 비용만 대략 100만 냥에 달했다고 하니⁴⁾, 그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711년 도쿠가와 이에노부(徳川家宣)의 6대 장군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신묘(辛卯)사절 때 이러한 통신사의 접대 의례가 바뀌었다. 당시 조선사절의 접대 책임을 맡고 있던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가 통신사 접대 의례를 대대적으로 개정했기 때문이다. 조선과 상의 없이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 개정으로 인해 사절단의 출발에서부터 시작하여 귀국할 때까지 한일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힘의 차이로 인해 결국은 하쿠세키의 의도대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이처럼 한일 양국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 하쿠세키의 통신사 의례 개정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그러한 의례 개정이 당시 한일관계에서 갖고 있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2. 사절 접대 의례의 개정

1709년 1월 10일 5대 쇼군 도쿠가와 쓰나요시(徳川綱吉)가 죽자 다음 달에 조선에 그의 부고가 전해지고, 4월에는 벌써 조선통신사의 방일을 요청하라는 명령이 쓰시마(對馬)에 하달되어 5월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하는 쓰시마의 사절이 조선에 도착한다. 이에 대

3) 栗田元次, 『江戸時代史』上卷 復刻板, 近藤出版社, 1976년, 525-526쪽

4) 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増訂版, 吉川弘文館, 1984년, 49쪽

해 조선 정부는 10월에 조문 사절을 파견하고, 11월에는 전례대로 축하사절을 파견하겠다는 답서를 보낸다. 그리고 1710년 4월에 다시 쓰시마에서 1711년 7, 8월경에 통신사가 방일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자 이를 승낙한다.

그런데 이처럼 두 나라 사이에 사절단 파견에 관한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하쿠세키에 의해 이미 조선사절 접대에 관한 의례가 개정되고 있었다. 통신사의 접대는 원래 하야시(林) 집안이 대대로 관장해 왔는데, 이 때에는 이에노부의 명으로 하쿠세키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고후한(甲府藩)의 한슈(藩主) 시절부터 이에노부를 섬기고 있던 하쿠세키는, 이에노부가 제6대 쇼군(將軍)이 되자 마나베 아키후사(間部詮房)와 함께 이에노부를 보좌하고 있었다. 이에노부의 명을 받은 하쿠세키는 1709년 5월 1일 6대 쇼군 습직(襲職)의 대례(大禮)가 끝나자마자 통신사 의례의 개정을 위한 건의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즉 6월 22일 조선 빙례(聘禮)에 관한 건의를 시작으로 10월 10일에는 의식(儀式)에 관한 책자를 올렸으며, 다음해 1월 22일에는 『빙사의숙(聘使議續)』, 2월 1일에는 『응접사의(應接事議)』 2권, 4월 20일에는 ‘국서 왕호(王號)의 건’에 대해 건의를 올렸다⁵⁾. 물론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알 리 없는 조선으로서는 사절 파견 전에 항상 해오던 ‘절목강정(節目講定)’의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미 1709년 11월에 전례에 따라 사절을 파견하겠다는 서한을 일본에 보냈기 때문이다.

이 때 하쿠세키에 의해 변경된 의례는 1)와카기미(若君)에의 폐물(幣物)과 배례(拜禮)를 폐지한다 2)로주(老中)에게 보내던 예조(禮曹)의 서계와 폐물을 폐지한다 3)국서에 쓰던 일본국 대군이라는 호칭을 일본국왕으로 바꾼다 4)아침과 저녁상은 7,5,3⁶⁾, 점심상은 5,5,3을 제공하던 전례를 도중에서 연회를 베푸는 5개 지역⁷⁾을 제외하고는 식료품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5)사절이 가마를 탄 채 객관에 들어가던 것을 가마에서 내려 들어가도록 한다 6)문안사가 객관을 방문하면 사절이 계단을 내려와 뜰에서 마중한다 7)문안사를 로주에서 고케(高家)로 바꾼다 8)쇼군에게 국서를 전달할 때 상상관(上上官) 대신 정사가 하도록 한다 9)사절이 쇼군에게 절하는 위치를 고산케(御三家, 쇼군의 문중인 紀伊·水戸·尾張의 세 집안)에서 고케(高家) 위치로 바꾼다 10)사향(賜饗) 때 고산케가

5) 三宅英利의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文獻出版, 1986년, 386쪽)와 宮崎道生の 『新井白石の研究』(増訂版, 吉川弘文館, 1984년, 817-818쪽) 참조.

6) 본상에 7종류, 다음 상에 5종류, 세 번째 상에 3종류의 요리를 내놓는 것

7) 『折りたく柴の記』(『新井白石全集』3, 國書刊行會, 1977년, 82-83쪽)에는 ‘도중에서 연회를 베푸는 4개 지역(路宴賜む事、四所)이라 되어 있고, 宮崎道生도 『定本折りたく柴の記釋義』(増訂版, 近藤出版社, 1985년, 304쪽)에서 4개 지역에 ‘京·大坂·駿府·江戸’라는 주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赤間關·大坂·京·名古屋·駿府’의 5곳이 맞을 것이다. 任守幹의 『東槎日記』(『海行總載』I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6년) 8월 1일조(175쪽)를 보면, ‘적간관(赤間關) 등 다섯 곳에 베푸는 연례(宴禮)’라 되어 있고, 赤間關(184쪽)이나 名古屋(203쪽)에서의 기록에 ‘강호(江戸)의 명으로 연회를 베풀었다’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三宅英利도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에서 도중에서 연회를 베푸는 곳이 ‘赤間關·大坂·京·名古屋·駿府’의 5곳(410쪽)이라 밝히고 있다.

동석하던 것을 영객사(領客使)로 대신하고 사절의 자리 위치도 바꾼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쿠후, 즉 하쿠세키의 방침에 따라⁸⁾, 이 중에서 사절단이 출발하기 전에 조선에 통고된 것은 1)항과 2)항뿐이었다. 그것도 1711년 1월경 왜관에 온 재판왜(裁判倭)가 와카기미가 어려서 사절의 배례를 받을 수 없고, 대신인 로주가 참판이 보내는 예조의 폐물을 받는 것은 격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한다고, 구두로 전달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조선정부는 일본인들이 말을 자주 바꾸므로 문서 없이 말만 듣고 전례를 변경할 수는 없다며 쓰시마를 통해 정식 서계를 요청한다. 그러나 사절단이 한양을 출발하기로 한 5월 15일이 다가오지만 일본측의 답장이 없자, 전례에 따라 준비를 갖추었다. 그런데 5월 10일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본측에서 조선의 국서와 서계에 사용된 ‘불선(不宣)’이란 글자를 문제 삼은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상론하기로 하자. 이런 와중에 쓰시마에서 기다리던 답서가 도착했는데, 자기들은 바쿠후의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적혀 있고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었다. 그러자 조선 정부는 사절단이 출발하는 15일에 허둥지둥 회의를 열어 여러 논의들이 오갔으나, 결국 1)항과 2)항을 일본의 요청에 따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서둘러 국왕에게 하직 인사를 고하고 한양을 출발한 사절단이 부산에서 바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다시 쓰시마로부터 중요한 서계가 도착했다. 바로 3)항의 복호(復號)문제를 다룬 내용의 편지였다. 그리고 이 문제도 묘당(廟堂)에서의 격론 끝에 결국 하쿠세키의 주장대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7월 4일 부산을 출발한 사절단이 쓰시마의 이즈하라(嚴原)에 도착하여 바람을 기다리고 있던 8월 1일, 다시 일본측으로부터 개정된 통신사 의례가 통보되었다. 바로 4), 5), 6)항의 내용이었는데, 조선에 파견된 일본 사절이 받은 대우와 똑같이 접대하겠다는 것이 개정 이유였다. 4)항에 대해서는 조선사절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지만, 5)항과 6)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발했다. 사절들은 병자(1636)사절부터 임술(1682)사절까지의 전례를 조사하여,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뜰에서 문안사를 맞은 적이 없으므로 이 개정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 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절목강정’에서 이미 임술사절의 전례를 따르기로 결정되었고, 더구나 사절이 본국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일본측의 이러한 개정 요구는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사절의 항의에 대해 일본측은 이번의 접대에는 전보다 우대하는 것도 있다며 달래기도 하고, 만약 끝까지 전례를 고집한다면 두 나라의 화친에 틈이 생길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회유와 협박에 2달 가까이 시달린 사절은 결국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쓰시마 도주는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으며 만약 더 이상의 개정 요구가 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막겠다⁹⁾고 했다.

8)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391쪽

9) 任守幹, 『東槎日記』, 『海行總載』IX, 197쪽

그러나 이런 약속은 모두 허사였다. 10월 18일¹⁰⁾ 사절이 에도의 히가시혼간사(東本願寺)에 도착하자, 사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객관을 방문한 문안사가 7)항처럼 로주(老中)가 아니고 고케(高家)인 시나가와 부젠노 가미(品川豊前守)였던 것이다. 로주란 조선의 정승에 해당하는 것인데, 일본의 사절이 조선에 갔을 때 정승이 사절의 객관을 찾아 온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종사관 이방언(李邦彦)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하쿠세키가 말한 것처럼, 오사카(大坂)나 교(京)에서의 위문사가 모두 로주가 아니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에도에서 이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을까¹¹⁾?

그리고 이날 위문사가 「진견·사향·사견의(進見·賜饗·辭見儀)」, 「수서의(受書儀)」, 「서폐급사자의(書幣及使者儀)」, 「빈위(賓位)」, 「헌왕(獻王)」, 「내연복(內宴服)」 등의 문서도 전달했는데, 이는 쇼군을 접견할 때의 의례에 관해 적은 것으로 바로 8), 9), 10)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8)항과 9)항은 기존의 예법이 적당치 않고, 10)항은 조선에서 일본의 사절을 접대할 때도 그런 적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하쿠세키의 뜻대로 되었다. 그런데 『동사일기』에는 이러한 문서를 받았다는 기록조차 없다. 다만 11월 3일 사향(賜饗)의 모습을 기록한 글 중에 10)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즉 사향이 시작되기 전에, 사절이 전례대로 연회에서 고산케가 접대해도 괜찮은데 쓰시마 도주와 장로로 접대하게 하니 미안하다며 이를 바꿔달라고 하니, 하쿠세키가 도주로 하여금 접대하게 한 것은 사신들이 마음 놓고 즐기라고 한 것으로 다른 뜻이 없었는데, 사신들이 미안하게 여기므로 아침에 이미 로주에게 접대하도록 바꾸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사절이 고산케나 로주, 도주 사이의 상하관계를 몰랐던 말인가? 그렇다면 하쿠세키의 대답은 또 무엇인가? 현재로서는 이 의문을 해결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이 대목을 보면 10)항에 관한 일로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하쿠세키도 연회장에 도착한 사절들과 이 10)항의 문제로 인해 언쟁을 벌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¹²⁾.

하쿠세키의 통신사 의례 개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대략 위와 같은데, 이러한 개정안은 조선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운 하쿠세키의

10) 『東槎日記』 10월 15일부터는 「日記補」라 하여 종사관 이방언의 기록에서 요점만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11)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3쪽. 그러나 임수간의 『東槎日記』를 보면 오사카에서 문위사를 맞을 때 ‘사시(巳時)에 공복(公服)을 갖추고 나가 강호사자(江戸使者) 이에수 뇌은(伊豫守頼殷)을 영접하여 청사에서 서로 읍하고 길을 나뉘 올라갔는데, 도주·관반·두 장로의 선도에 따라 연청(宴廳)에 도착하여 제음례를 행하였다(198쪽)’라 했고, 교(京)에서는 ‘좀 늦어 사자가 들어왔으니 곧 기이수(紀伊守)였다. 청하(廳下)에서 읍하고 맞이하였고, 도주 관반 등은 문밖에 나가 맞이하였다(200쪽)’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위문사가 로주인지 고케인지 몰랐던 것일까? 혹은 중요한 개변(改變)이 너무 많았기에, 이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이도저도 아니면, 종사관 이방언의 기록에서 요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생략한 것일까?

12)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3-84쪽

뜻대로 관철되었다. 그러나 하쿠세키의 의례 개정 작업은 이제부터 살펴볼 것처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데다가,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었기에 조선과 일본 양쪽에서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도 조선사절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소위 ‘국휘(國諱)’를 둘러싼 문제였다.

3. 국휘(國諱)를 둘러싼 논쟁

중국에서는 선진(先秦)시대부터 이름을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발달하여 문장이나 대화 중에 천자나 조상, 부모 등 특정인의 이름자가 나오면 이를 피하는 피휘법(避諱法)이 발달했다¹³⁾. 특히 천자의 이름자는 모든 백성이 피해야 했으므로 이를 국휘라 불렀는데, 이를 어기면 대역무도(大逆無道)의 죄로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1777년에는 왕석후(王錫侯)란 학자가 책을 쓰면서 당시 황제인 건륭제(乾隆帝)의 이름을 범했다 하여 본인은 물론 관계된 인물 수 십 명이 참형(斬刑)에 처해졌다고 한다. 이 피휘법에는 글자를 아예 쓰지 않고 주를 붙이는 공자법(空字法), 뜻이 같은 다른 글자로 바꿔 쓰는 개자법(改字法), 글자의 획을 다 쓰지 않는 결획법(缺劃法)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것이 공자법이고 개자법, 결획법의 순서라고 한다.

우리는 원래 왕의 이름도 즐겨 부르는 관습이 있었지만, 중국문화를 수용하면서 신라 말기에 일시적으로 피휘법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고려 초기에는 이를 채용하지 않다가 유교문화 수용에 적극적이고 전제왕권을 수립하려고 한 광종 15년(965년) 경에 피휘법이 제정되었다. 그 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이 제도는 고려 말까지 지속되어 조선으로 이어졌는데, 조선은 유교 국가답게 이 제도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그렇지만 편휘(偏諱)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이름이 두 글자인 경우에 그 중의 한 글자는 사용해도 괜찮았던 것이다.

이른바 국휘논쟁은 조선국왕에게 보내는 쇼군의 답장인 복서(復書)에서 시작되었다. 11월 11일 에도성에서 쇼군의 국서를 받아들이고 숙소로 돌아온 사절단은 일본의 국서에서 ‘역(懌)’이란 글자가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 ‘역’은 당시의 조선 임금 숙종의 7대 전 임금인 중종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문장을 쓸 때 ‘휘(諱)’해야 할 글자, 즉 피해야 할 글자였다. 그런데 이 글자가 일본의 복서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사절들은 일본측에 즉시 국서를 다시 써달라고 요청했다. 국휘와 관련된 문제는 그 죄를 엄중하게 묻기 때문이다. 임수간의 『동사일기』는 복서를 받은 11월 11일 이후의 모든 기사를 「국서 고

13) 이하 피휘법에 관한 기술은 정구복의 「고려조의 피휘법」(『한국중세사학사(1)』, 집문당, 1999년, 425-448쪽)과 정석원의 「문화가 흐르는 한자」(『동아일보』, 2002년 11월 10일)를 참고했다.

치기를 요청한 시말(國書請改始末)』로 채우고 있다. 조선 사신이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 알게 해 주는 대목이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국서를 받아 보기 6일 전에 이루어진 하쿠세키와의 필담¹⁴⁾에서, 조선사절이 일본의 피휘법에 관해 묻고는 복서를 정서하기 전에 한 번 보여 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휘 논쟁이 시작된 것은 11월 11일 이후의 일이다. 즉 일본의 국서를 받아보고 나서 거기에 ‘역’자가 쓰인 것을 발견한 사신이 항의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그 6일 전인 11월 5일에 이루어진 필담에서 일본의 피휘법에 관해 질문한 것이다. 마치 국휘 논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이. 아나, 사절들은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절단이 조선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국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장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사절단의 출발을 5일 남겨놓고 있던 5월 10일, 부산첨사와 동래부사가 쓰시마 도주(島主)에게 보낸 서계와 숙종이 쇼군에게 보낸 국서 및 예조(禮曹)의 서계(書契)에 대해 일본측에서 문제를 삼은 일이 발생했는데, 조선의 서계 끝 부분에 사용된 ‘불선(不宣)’이란 글자를 바꿔달라는 것이었다. 즉 새로운 쇼군의 이름이 ‘가선(家宣)’이므로 ‘불선(不宣)’에서 ‘선(宣)’은 휘(諱)해야 할 글자, 즉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글자라는 것이다. 두 글자의 이름은 편휘하지 않고, 또한 일본에는 피휘법이 없다고 알고 있던 조선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웠겠지만, 이미 동래부사에게 사절단이 5월 15일 한양을 출발하여 6월 21일 승선하게 될 것이라고 통고를 해 놓은 상태인지라, 부랴부랴 서둘러 국서와 서계를 새로 작성한 일이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하쿠세키도 이 필담이 있기 전에 쓰시마 도주(島主)가 묻는 것처럼 해서 조선의 국휘에 대해 물어보도록 시켰는데, 조선 사절이 국휘에 관한 것은 왜 묻느냐며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⁵⁾. 급격한 개혁 때문에 당황하고 있던 조선 사절로서는 또 다시 받아들이기 힘든 개혁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꼈을 것이다. 사절을 위로하기 위해 쇼군이 보낸 문안사(問安使)가 객관을 방문하면 사절이 계단을 내려와 뜰에서 맞이해야 한다는 6)항의 개정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 ‘만약 이 일을 허락하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떤 들어주기 어려운 요청이 있을는지 모른다. 이 때문에 결코 허락하기 어렵다¹⁶⁾’고 한 임수간의 발언은 이러한 조선사절의 불안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하쿠세키의 개혁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조선 사절이었기에, 쓰시마 도주로부터 조선의 국휘에 관해 질문을 받자 이에 관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필담에서 조태억이 국휘에 관한 화제를 끄집어 낸 것도, 바로 이러한 일이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14) 이 날의 필담을 정리한 것이 『江關筆談』이다. 여기에는 중화문명에 관한 이야기부터 세계 지리에 이르는 다양한 화제가 등장하고 있어, 18세기 한일간 문화교류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텍스트 구실을 한다.

15) 新井白石, 『朝鮮聘使後議』, 『新井白石全集』4, 681쪽

16) 任守幹, 『東槎日記』, 197쪽

그런데 조선 사신의 이런 불길한 예감은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일본의 국서에 ‘역’자가 사용된 것이다. 조선 사절은 국서를 고쳐주지 않으면 살아서 귀국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대해 하쿠세키도 조선의 국서에서 먼저 일본의 휘를 범했으므로, 만약 일본의 국서를 고치려고 한다면, 먼저 조선의 국서부터 다시 써와야 한다고 맞섰다. 조선의 국서에 이에노부의 조부인 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의 ‘광(光)’이란 글자가 사용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 사절이 일본은 피휘법이 없지 않느냐며 항의했으나 하쿠세키는 요지부동이었다. 이처럼 조선 사절과 하쿠세키의 대립이 격화되자, 항간에서는 조선과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하쿠세키를 비난하는 소리가 높았지만¹⁷⁾, 그도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하쿠세키의 주장대로 두 나라가 모두 국서를 새로 써 쓰시마에서 교환하기로 함으로써 끝이 나게 되는데, 이 논쟁은 양국 정부만이 아니라 논쟁 당사자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사절단의 삼사(三使)는 귀국하자마자 관직을 삭탈 당하고 4대문 밖으로 쫓겨났으며¹⁸⁾, 하쿠세키도 조선사절이 에도를 떠나자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미 말한 것처럼, 이 때 하쿠세키는 사절단의 접대를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국서를 정서하기 전에 보여주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아니, 일본은 원래 피휘법이 없었으므로 사후에라도 국서를 다시 써 주었으면 양국간에 벌어진 심각한 대립을 없앨 수도 있었을 것이다¹⁹⁾. 그런데 그는 일본이 ‘근세에 이르러 대저 편휘의 법을 채용하고 있다²⁰⁾’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사태를 심각하게 몰고 갔던 것이다. 양국간의 우호를 돈독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그가, 이처럼 싸움을 유도하는 듯이 행동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조선이 일본에 대한 원한, 특히 임진왜란에 대한 원한을 잊지 못하고 늘 일본에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²¹⁾. 그런데 군사적인 면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자 그 대신 ‘문(文)’를 이용한 복수를 생각해 내었는데, 국휘문제가 바로 그

17) 이에 대해 이방언은 로주(老中)인 사가미노 가미(相模守)가 하쿠세키를 몹시 미워하여 칼로 찔러 죽이려 했다(『東槎日記』, 227쪽)고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하쿠세키를 비난하는 당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음을 보여주는데, 하쿠세키도 당시의 상황을 ‘조선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시끄러웠다(彼國の人よりも、なほ我國の人々のいひののしる事共多かりにつれ)(『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4쪽)고 적고 있다.

18)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년, 424쪽

19) 사실 이 부분에서 당시 조선의 준비 없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측에서 ‘불선’의 문제, 즉 국휘의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당연히 다른 글자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봐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이 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국휘 문제가 터지자 일본은 피휘법이 없는 줄 알았다거나 먼저 일본의 국서를 고쳐주면 귀국해서 조선의 국서를 새로 써서 보내주겠다는 등 허둥지둥했던 것이다.

20) 조태억 편, 『강관필담』, 『新井白石全集』4, 728쪽

21) 자세한 것은 정응수의 『江關筆談』을 읽으(『江戸の文事』, ぺりかん社, 2000년, 63-64쪽)를 참조할 것

‘문’을 이용한 조선의 복수라는 것이다. 즉 글을 쓸 때 군주의 이름자가 들어간 글자를 피하는 것은 신하가 지켜야 할 예절이므로, 일본이 국서에서 조선 국왕의 이름을 피하게 되면 조선의 신하 나라처럼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이 자꾸 일본의 국서에서 조선의 국휘를 못 쓰게 하는 것은 일본을 신하의 나라로 취급하려고 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문’을 이용한 조선의 복수라는 것이다. 그가 국휘 문제를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관련된 일이 몹시 큰 문제(其國諱避しめまいらせん事は、其係る所最大也とおもひはかりし所を、我かねてより思ひ合せし事共あれば、我もまた死を誓ひて、初のことばを改めず²²⁾)라 생각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4. 복호(復號)를 둘러싼 논쟁

하쿠세키의 개정안 중에서 조선사절이 가장 강력하게 반발한 것이 ‘국휘문제’였다면, 일본 국내에서의 반발이 가장 격렬했던 것은 소위 ‘복호(復號)문제’였다. 이것은 그때까지 한일간의 외교문서에서 쇼군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일본국 대군’이란 호칭을 ‘일본국왕’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이를 ‘복호’라 한 것은 일본국왕이란 칭호를 자기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이미 사용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 쓴다는 의미에서 붙인 것이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고려와의 외교문서에서 일본국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도쿠가와 시대가 되고나서는 쇼군이 일본국왕이란 칭호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즉 도쿠가와 바쿠후 최초의 사절인 정미(丁未, 1607)사절과 그 다음의 정사(丁巳, 1617)사절에게 건넨 일본측 답서에는 둘 다 ‘일본국 원수충(日本國源秀忠)’으로 되어 있고, 갑자(甲子, 1624)사절에의 답서에는 ‘일본국 원가광(日本國源家光)’이라 되어 있다. 그러다가 1634년 이른바 ‘야나가와(柳川) 사건’²³⁾이 터지면서 대조선 외교 체제 정비의 필요성을 느낀 쇼군 이에미쓰(家光)가 쇼군의 칭호를 일본국 대군으로 결정한 다음, 이를 조선정부에도 통보하여 4번째 사절인 병자(丙子, 1636)사절부터 일본국 대군이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무로마치 시대의 예로 돌아간다면 복호라 해도 상관없지만, 하쿠세키 자신의 말처럼 이에

22) 新井白石, 『折りたぐ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4쪽.

23)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의 국교회복에 한(藩)의 사활이 걸려 있던 쓰시마의 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가 가로(家老)인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외교승 겐소(玄蘇) 등과 짜고, 조선을 두 번 다시 침략하지 않겠다는 이에야스(家康) 명의로 국서를 위작(偽作)하여 조선에 보낸 사건을 말한다. 물론 이 위작 국서로 인해 한일간의 국교가 회복되었는데, 이 위작 국서에 일본국왕이란 칭호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는 바쿠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쓰시마가 멋대로 도용한 것이다. 1643년 쓰시마의 내분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바쿠후에 알려지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지만, 바쿠후는 야나가와와 겐포(玄方)를 귀양 보내는 것으로 이 사태를 마무리했다. 바쿠후도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다음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절차상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반해 일본 국내에서의 반발은 복호 그 자체에 대한 반발이었기에 문제가 심각했는데, 『조선국신서의 서식에 관한 일(朝鮮國信書の式の事)』이나 『국서복호기사(國書復號紀事)』, 『수호사략(殊號史略)』, 『추억의 기록(折りたく柴の記)』 등에 나타난 하쿠세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조선의 서적에서도 일본의 천자는 천황이나 천왕으로 쇼군은 왕이라 표기하고 있으며, 원(元)이나 명(明)에서도 쇼군을 일본국왕이라 칭했다고 한 다음, 쇼군을 일본국왕이라 칭한 조선의 국서도 도쿠가와 시대에만 세 번이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어서 대군이 천자의 이칭(異稱)이라는 설이 있으므로 천황과 혼동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는 왕의 적자(嫡子)를 대군이라 부르므로 이를 사용하면 쇼군이 조선의 관직을 받은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즉 일본국대군이란 칭호를 사용하면 국내적으로는 참칭(僭稱)의 우려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조선의 신하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쿠세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대로 조선과의 외교 업무를 담당해 왔던 하야시 집안은 말할 것도 없고 쓰시마의 유학자 마쓰우라 가쇼(松浦霞沼)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등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하쿠세키와 동문수학한 호슈는 일본국이란 국호(國號) 뒤에 왕(王)이란 글자를 붙이면 쇼군이 일본에서 가장 높은 존재가 된다면 하쿠세키를 맹렬히 비판했다. 다시 말해 쇼군이 천황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어, 이야말로 참칭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하쿠세키는 ‘쓰시마의 기개 없는 학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한 다(對馬國にありつるなま學匠等が、知るにも及ばで、とありかくありといふ²⁶⁾)’며, 중국에도 주왕(周王) 밑에 주공(周公)이 있고 초의제(楚義帝) 밑에 초패왕(楚霸王)이 있었으니, 천황 밑에 일본국왕이 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²⁷⁾고 반박했다. 또한 복호가 무가(武家)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정을 위해서도 나쁠 것이 없다고 했지만, 이러한 논리로는 복호 반대론자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²⁸⁾. 이 때문에 그는 궁지에 몰렸지만, 쇼군 이에노부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결국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런데 그가 다른 문제와 달리 이 문제에서 이렇게 궁색한 논리를 편 것을 보면, 복호가 일본 국내에서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조선과 대등해지려는 데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가 복호를 시도한 동기나 목적이 시종 대외적이었다는 지적²⁹⁾은 이런 면에서 타당성을 지닌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쿠세키가 쇼군을 천황과 동등한

26)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2쪽

27) 新井白石, 『國書復號紀事』, 『新井白石全集』4, 702쪽

28) 三浦周行, 『日本史研究』第2輯下, 岩波書店, 1981년, 1069쪽

29) 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 増訂版, 吉川弘文館, 1984년, 91쪽

지위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가 초의제 밑에 초패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천황과 국왕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황을 중국의 황제와 동일한 지위로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천황과 황제가 같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천황의 신하인 쇼군과 조선국왕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삼전도(三田渡)의 굴욕 이후 조선국왕이 청나라 황제의 신하라 칭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국왕과 똑같은 지위에 있는 쇼군도 조선국왕과 마찬가지로 왕이란 칭호를 사용해야 하는데, 조선과의 외교 문서에서 쇼군이 대군이란 칭호를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히쿠세키로서는 이를 묵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조선이 ‘문’을 이용해 일본에 복수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로서는, 조선의 신하 취급을 받을 소지가 있는 일본국대군이란 호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참칭의 우려가 있다는 대다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왕이란 호칭을 고집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일본의 통치자인 쇼군을 조선국왕과 대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면 쇼군이 그 지위에 걸맞는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가 복호 문제야말로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それが中復號の御事こそ第一の難事なりつれ³⁰⁾’이라 하면서도, 이 문제에 매달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통신사 의례 개정의 중심을 이루는 개념이 ‘대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의 인용을 보기로 하자.

또 최근의 예로는 그 나라 사절이 지나가는 지역에서, 아침과 저녁상은 7.5.3, 점심상은 5.5.3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은 우리 조정의 천황 사절을 접대할 때조차도 그 예가 없는 일이다. 특히 사절이 통과하는 지역의 노력과 비용은 측량할 수 없는 정도라, 이제부터는 그 나라가 우리 사신을 대우하는 예와 똑같이, 도중에서 연회를 베푸는 4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만 식료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이라고 대마도에 하명하였다. 이 일은 그 나라 사절도 원래 예식의 번거로움을 싫어하고 식료품 받는 쪽을 좋아했으므로 다른 말이 없었다.

(又近例は彼使の來り過る所々にて、朝夕の膳七五三、晝の膳は五五三を供す、かかる事は、我朝の天使を待せ給ふ所といへども其例なし、殊には路次の國々の勞費もはかりがたし、今よりしては、彼國にして我國の使を待する例のごとく、路宴賜む事、四所の外は、たゞその食料をあたらへらるべしと、對馬國に仰下さる、此事は彼使ももとより其禮の煩しきに堪ず、食料給らんは其便よかりければ、申す事もなし³¹⁾)

이것은 4)항의 개정에 관한 이유, 즉 사절 접대의 간소화에 관해 쓴 것이다. 이 접대의

30)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1쪽

31)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2-83쪽

간소화는 원래 재정상의 이유, 다시 말해 조선 사절의 영접에 드는 비용이 막대한 데에서 생각해 낸 것³²⁾이지만, 그 이유로 들고 있는 ‘이제부터는 그 나라가 우리 사신을 대우하는 예와 똑같이’ 한다는 부분이 주의를 끈다. 즉 지금까지는 동등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일본 사절이 조선에서 대접 받는 것과 똑같이 조선사절을 접대하겠다는 것이다³³⁾. 다시 말해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까지 접대 의례의 개정에 매달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한편 하쿠세키의 이러한 논리는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조선이 천황의 신하와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은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선이 일본의 속국처럼 취급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단순히 복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바쿠후 체제와 관련된 소위 ‘대군 외교’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이 문제로 인해 묘당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 조선 정부에서조차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던 것은 답답한 일이었다³⁴⁾. 무로마치 시대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급박하게 전개되는 일본의 개정 요구에 경황이 없어서였을까?

5. 끝내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쿠세키는 조선이 일본사절을 대접하는 만큼만 접대하겠다는 원칙하에 조선통신사 의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그 개정은 한일 양국이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쿠세키가 현실적인 힘의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32) 앞서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통신사 1회 방문에 바쿠후가 사용하는 경비는 대략 100만냥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신묘사절 때는 하쿠세키의 의례 개정으로 인해 60만냥 정도 들었다고 한다(宮崎道生, 『新井白石の研究』, 49쪽). 그러나 이는 통신사가 지나가는 각 지역의 한(藩)들이 부담하는 경비는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그 비용을 전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다. 참고로 이 신묘사절 때 시모노세키(赤間關)을 관할하던 쇼슈한(長州藩)의 경우를 보면, 동원된 연인원이 9,700명이고, 징발된 선박은 1,400척이나 되었다고 한다(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412쪽). 이 외에도 사절들 숙소의 보수나 연회, 식료품 등에 드는 비용을 합치면 각 한이 부담하던 비용도 엄청났던 것을 알 수 있다.

33) 宮崎道生은 『新井白石序論』(증정판, 吉川弘文館, 1976년, 39쪽)에서 하쿠세키의 대조선 외교의 기본 방침이 화평, 간소, 대등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간소라는 것도 결국은 대등이라는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다.

34) 이 ‘대군 외교’의 문제는 따로 논해야 할만한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당시에 ‘대군 외교’가 안고 있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사람이 있었다는 점만은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같은 18세기를 살았던 실학자 이익(李瀾, 1681-1763)이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인데, 그는 만약 천황이 정치적 실권을 되찾게 된다면 천황의 신하인 쇼군과 대등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국왕의 위치가 모호해질 것이라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익의 우려대로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이 실권을 되찾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한일간의 외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하우봉의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일지사, 1989년, 89-91쪽)를 참조할 것.

강요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그의 개정안에 대해 조선 사절들의 항의가 잇달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격렬했던 것이 이른바 국휘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결국 하쿠세키의 주장대로, 두 나라가 모두 국서를 새로 작성하여 쓰시마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도 근세부터 편휘의 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강경한 자세를 취한 것은 물론 조선과 대등해지기 위해서였다. 즉 국휘를 피하는 것은 신하가 지켜야 할 예절이므로, 일본만 조선의 국휘를 피하게 되면 일본이 조선의 신국(臣國)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나라가 서로 동등하게 피휘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같이 무시하자는 것이었다.

복호도 물론 조선과 대등해지려는 의도에서 시도한 것이었다. 즉 대군이란 칭호가 조선에서는 왕의 적자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쇼군이 조선과의 외교문서에서 일본국대군이란 호칭을 사용하게 되면 조선의 신하 나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쇼군도 그 지위에 걸맞게 일본국왕이란 칭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복호가 조선을 의식해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그의 의도와 달리 조선보다 오히려 일본 국내에서 더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조선에서는 복호가 안고 있는 외교적인 의미보다는 개정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던 반면, 일본에서는 복호가 함유하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의미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이 논쟁이 쇼군과 천황의 지위에 관한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나에 관해 말하게 된 것은 이 일로부터 시작(世の人々我事を申す事の出來たりしは、此事より始りければ³⁵)’되었다고 하는 하쿠세키 본인의 말처럼, 그는 반대론자들의 거센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렸지만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하쿠세키의 통신사 의례 개정 작업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임진왜란 이상으로 일본의 국위를 선양한 것³⁶으로 보거나, 수(隋)나라에 대한 쇼토쿠(聖徳) 태자의 태도와 함께 일본 외교사상의 2대 광채³⁷라 찬탄한 학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룩한 통신사 의례 개정이란 것이 불과 8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개혁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을 보면, 그의 개혁이 당시의 동아시아적 외교 관례나 조선과의 외교관계를 필요로 했던 바쿠후의 사정 등을 무시한 비현실적인 개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리라.

35) 新井白石, 『折りたく柴の記』, 『新井白石全集』3, 81쪽

36) 上田萬年, 『新井白石』, 栗田元次の『江戸時代史』上卷(復刻板, 近藤出版社, 1976년, 538쪽)에서 재인용.

37) 栗田元次, 『江戸時代史』上卷 復刻板, 近藤出版社, 1976년, 538쪽

【參考文獻】

- 任守幹(1986년)『東槎日記』,『海行總載』IX,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75, 184, 197, 198, 200, 203쪽
- 鄭求福(1999년)「高麗朝의 避諱法」,『韓國中世史學史(I)』, 集文堂, 425-448쪽
- 정석원(2002년 11월 10일)「문화가 흐르는 한자」,『동아일보』
- 趙泰億 편(1977년)『江關筆談』,『新井白石全集』4, 國書刊行會, 728쪽
- 河宇鳳(1989년)『朝鮮後期實學者의 日本觀研究』, 一志社, 89-91쪽
- 新井白石(1977년)『折りたく柴の記』,『新井白石全集』3, 國書刊行會, 81-84쪽
- _____(1977년)『國書復號紀事』,『新井白石全集』4, 國書刊行會, 702쪽
- _____(1977년)『朝鮮聘使後議』,『新井白石全集』4, 國書刊行會, 681쪽
- 李進熙(1987년)『江戸時代の朝鮮通信使』, 講談社, 1쪽
- 栗田元次(1976년)『江戸時代史』上卷 復刻板, 近藤出版社, 525-526, 538쪽
- 鄭應洙(2000년)「『江關筆談』を讀む」,『江戸の文事』, べりかん社, 63-64쪽
- 三浦周行(1981년)『日本史研究』第2輯下, 岩波書店, 1069쪽
- 三宅英利(1986년)『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386, 391, 395, 402, 410, 412, 424쪽
- 宮崎道生(1984년)『新井白石の研究』増訂版, 吉川弘文館, 39, 49, 59, 91, 817-818쪽
- _____(1985년)『定本折りたく柴の記釋義』増訂版, 近藤出版社, 304쪽

要 旨

本論文は新井白石の朝鮮通信使儀禮の改変について考察したものである。白石は朝鮮が日本使節を待遇することと同じように朝鮮使節をもてなすという原則をもって改革を斷行した。しかし、その改変は朝日兩國が十分に協議しあってから決定されたものではなく、白石が現實的な力の優位を利用して一方的に強要したものである。それで彼の改正案に對して朝鮮使節からの抗議が相次いだ、なかならず一番激しかったのがいわゆる「國諱問題」であった。

が、これも結局白石の主張通りに、朝日兩國がお互いに國書を書き改めて對馬で交換す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勿論白石が日本も近世から偏諱の法を採用しているという嘘をつきながら、この問題について強硬な態度をとったのは朝鮮と對等になるためであった。すなわち、國諱を避けるのは臣下がすることであるので、日本だけが朝鮮の國諱を避けると、日本が朝鮮の臣國のように誤解される余地があるから、朝日兩國がお互いに相手國の諱を避けることにしようということである。

「復号」もまた朝鮮と對等になるために試みられたものである。すなわち、大君という称号は朝鮮では王の嫡子を指す言葉であるので、朝鮮との外交文書で將軍が大君という称号を使用すれば、朝鮮の臣國のように見做される恐れがあるから、將軍もその地位にふさわしい称号である王号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しかしながら、これは天皇とも密接な関わりをもっている問題であるので、朝鮮より日本からの反發がもっと大きかった。だが、白石は反對論者の激しい攻撃により窮地に追い込まれながらも最後まで自分の主張を曲げなかった。それで、通信使儀禮はすべて白石の意図通りに改正された。

ところが、彼があればほど念をこらして行った朝鮮外交の改革というものが、わずか八年も経たないうちにまた改革以前にもどり、彼も政治の第一線から退く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これは彼の改革が当時の東アジアの外交慣例や、朝鮮との外交關係を必要とした幕府の事情などを無視した、非現實的な改革で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ものであろう。

キーワード：朝鮮通信使, 新井白石, 通信使儀禮の改正, 國諱論争, 復號,
日本國大君, 日本國王號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330-707)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남서울대학교 외국어학부
電 話 : 041) 580 - 2173
e-mail : chunges@nsu.ac.kr